

J. W. Peterson
C7

1. 찬란한 광명이 내리던 날 잊을 수 없 - 노 라
 2. 내 앞이 깁깝한 그 때일을 잊을 수 없 - 노 라
 3. 모 두가 내 곁을 떠나가도 주님 만계시오면

어둠의 괴롭던 그 날가고 구세주 뵈옵던 날
 정의와 불의 가교 차된 날 한 없이 슬펐노라
 어 떠한 괴로움 두려움도 말 없이 사라지네

오주여 반기리 친구되어 이내 몸 가지 소서
 평화가 사라진 무덤위에 이찬바람 불어 오고
 주여 나당신께 무릎꿇고 간절히 바라오니

어두움 버리고 충만한 기쁨을 영원히 고백하리
 어두운 나그네 갈길을 잊고 서하늘만 바라보리
 짚음은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힘차게 나가리네

영광이 주께 들판 하소서
 갈길은 멀고 상가 땅살 드거우며 소지리
 힘차게 세상 살아 가하마 가서네다